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제주의료원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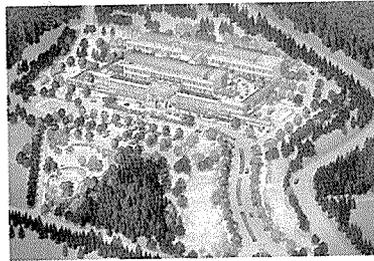
창원시립서상도서관

제주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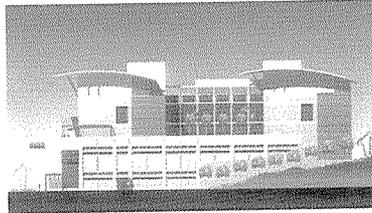
Cheju Medical Center

이 현상설계경기는 제주의료원의 이전에 따른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총 12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결과 삼우설계(한상목+이해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5월 6일 발표됐다. 우수작으로는 현신건축(김희수)안과 서건건축(엄 웅)안이 각각 선정됐으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석윤(김석윤 건축), 김세봉(제주 전문대 교수), 김태일(제주대 교수), 문창호(군산대 교수), 손영수(제주대 교수),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신호(보건의료 관리연구원), 이용희(제주 의료원장), 주종원(서울대 교수)

▶ 당선작 / 삼우설계
(한상목+이해원)



조감도



투시도



내부 투시도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아좌 1동 4-13
대지면적	52,739㎡
건축면적	5,216㎡
연 면 적	21,342㎡
건 폐 율	9.8%
용 적 륜	29.3%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외벽 - 국산화강석(가평석) Stonecoated 마감 THK 16 복층유리 지붕 - 동판접기

프로젝트 팀 건축 - 이승호, 이건섭, 김명희, Matthew Vander Borgh, 박순희, 오정민
조경 - Paul Blazek
컴퓨터시뮬레이션 - 황수영, 류준식, 어수기, 장일선

3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현상설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설계안을 제

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모든 참여 인원이 가졌던 의문이다. 제주의료원의 이전을 위한 이 현상설계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연면적은 약 6,000평에 달한다. 부지는 제주시의 외곽에 위치하며, 5·16제주 순환도로에 인접한 목장부지이다. 비 오는날 처음으로 찾아가 부지는 초봄의 신록으로 뒤덮여 제주의 아열대성기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라산의 북경사 면에 위치한 탓에 가장 채광이 좋은 자리가 북향해 있다는 점 때문에 배치계획의 결정에서 주출입구의 위치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러한 활발한 토론이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으로 이어진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배치대안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300Bed를 수용하는 병동부(Nursing Tower)의 형태와 축에 관한 것, 그리고 별다른 지침없이 요구된 영안실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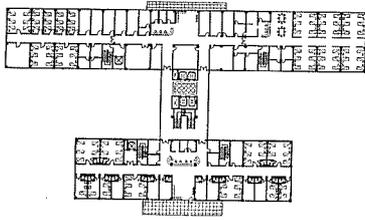
진입로는 기존의 폭이 좁은 연결도로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에 접근하는 동선이 길어졌지만 이를 확실한 Gate로 삼아 인근의 제주대학의 교문에서 보이는 벚꽃터널 같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Way Finding을 쉽게 하고 마치 공원을 방문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병동부는 최초의 "꺾인 H-字形"에서 대칭을 이룬 형태로 변형하여 각 병동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했다. 일반 병동과 노인병동, 정신병동의 동선이 혼재된 가운데 "병동간의 적절한 분리와 향후 용도변경에 대비한 연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병동 디자인의 최고 주안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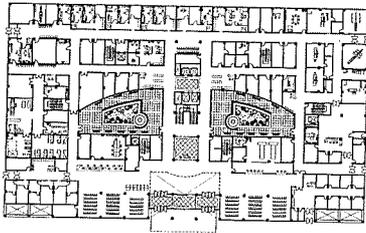
입면에서는 초기안에서 제안된 강한 하이테크한 느낌의 지붕보다는 제주 성읍마을 초가의 이미지에서 빌려온 부드러운 Vault형의 지붕을 씌우는 안이 병원의 이미지에 잘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디자인의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4월 중순이후 입면 디자인은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힘든 작업이었다.

짧은 시간안에 디자인을 마치느라 무척 힘이 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대하고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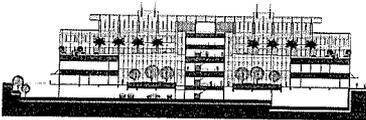
그간의 피로가 많이 가시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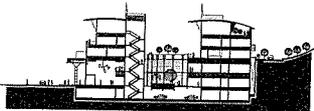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1



단면도-2

▶ 우수작 / 현신건축(김희수)



조감도

대지면적	57,739㎡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6,120㎡
연면적	20,338㎡
건폐율	11.6%
용적률	38.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계획

자연적인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평

면 및 단면계획으로 병동과 진료부를 수평적으로 분리한 분동식으로 구성하였다. 병동의 배치는 탁트인 자연과 접하여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동부에 인접한 옥외공간에 선크가든 및 치유의 정원, 물의 정원, 암석의 정원 등 각종 정원을 계획하여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평면계획

1층에 모든 외래진료과를 배치하여 중앙진료부와 수평, 수직적으로 연결하였으며 외래환자는 1층에서 진료와 처치가 가능하게 하여 수직동선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동부와 중앙진료부를 수평으로 연결시켜 환자의 동선을 단축시켰으며 정신과 병동은 별동으로 계획하여 다른 시설과 동선을 분리하고 옥외출입동선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입면계획

제주도의 오름을 상징하는 모임지붕 형태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한라산의 크고 작은 오름과 조화되는 입면을 구성하였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별장식의 의료시설로 계획하여 도로변의 개방공간에 조화를 이루는 매스의 분절, 리듬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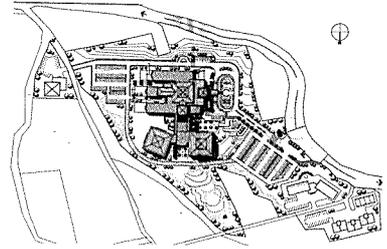
단면계획

인텔리전트 빌딩(I.H.S)의 개념을 도입한 현대시설의 의료원으로서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층고를 높게 하고 향후 증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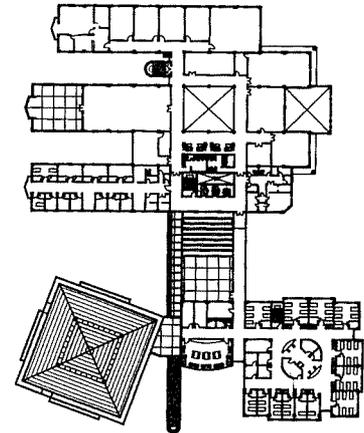
자연의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노인병동의 옥외출입은 지하1층에서, 정신병동의 옥외출입은 1층에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방문객이 많이 예상되는 노인병동은 주출입구층에 일반병동은 이용빈도가 높은 중앙진료부가 있는 층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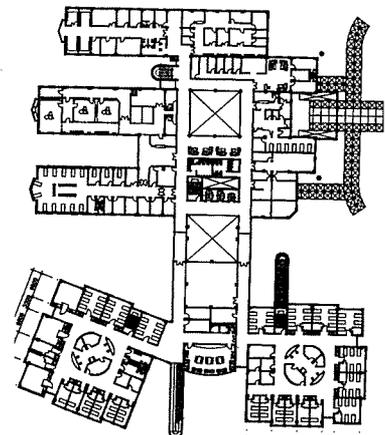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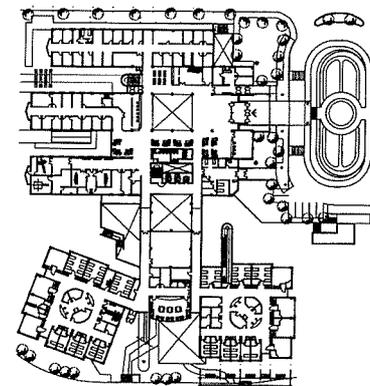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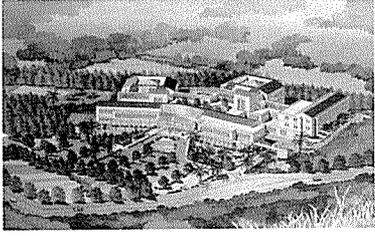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서건건축(업 용)



조감도

위 치	제주도 아라1동 4-13외 11필지
지역지구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52,739㎡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병 상 수	노인병동 - 92병상(호스피스 16병상 포함) 일반병동 - 92병상 정신병동 - 100병상 중환자 - 12병상 총 병상수 - 296병상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면적	7,058.72㎡
연 면 적	20,368.62㎡
건 폐 율	13.38%
용 적 륜	29.63%
주차대수	181대(기숙사, APT, 장의예식장 주차 제외)
계획담당	이항렬, 홍계열
설계담당	엄정웅, 우현배, 이동훈, 손태일, 최미자, 이철환, 장천수, 유형선, 김진희, 김연정, 조수연

Concept

이 제주의료원 설계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요양병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요양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연 환경과 내부 공간과의 긴밀성 - 바람 · 공기 · 물 · 햇빛 · 흙을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 - 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특히 의료 시설과 고품질의 연관성에 착안하여 노인 요양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긴박감보다는 여유로움을, 소독냄새보다는 홍차의 향을, 차가운 의리기구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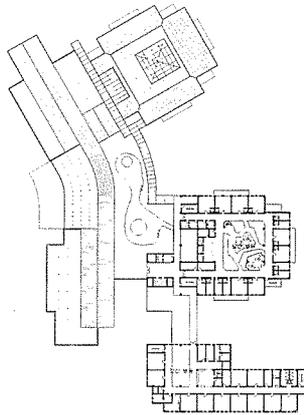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만 보기보다는 거닐며 만질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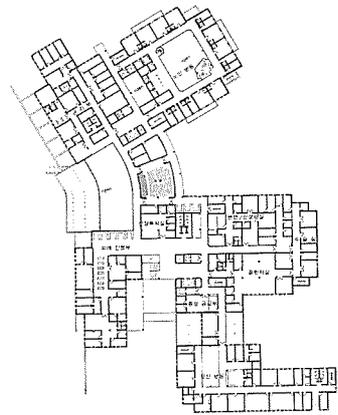
- 우수한 주변 경관을 외부공간으로 적극 활용
- 자연 안의 요양병원
- 외부 자연 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개방성 있는 로비
- 환자들의 Activity를 고려한 실내 중정
- 가정과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연출하는 환자의 공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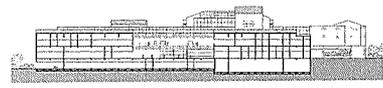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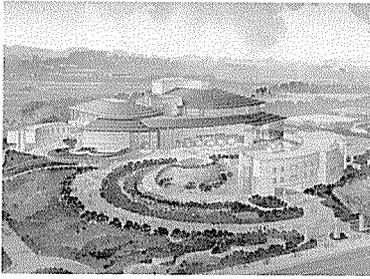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Cheju Civil Culture &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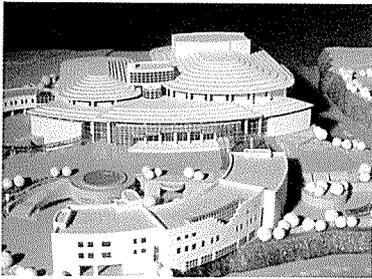
제주도는 시민의 휴식처와 문화교류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서 또한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건립,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4월 7일 현신건축(김희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최종 사전 서류심사를 거친 5개업체(현신건축, 성림건축, 금성건축, 포스에이씨, 세진건축)와 추가 선발업체(청화건축, 삼정건축, 제주 소재 2개소)를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했다. 당선작에게는 설계전을, 지망업체에는 1천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기(구미공전 학장, 위원장), 김광문(한양대 교수), 정재철(국민대 교수), 윤도근(홍익대 교수), 문기선(제주대 교수), 이봉만(제주시의회 총무위원장), 김성흠(제주시 총무국장)

▶ 당선작 / 현신건축(김희수)



조감도



모형

위 치	제주시 도남동 1070번지의 49필지
대지면적	54,202㎡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건축면적	6,119.05㎡
연 면 적	19,120.12㎡
건 폐 율	11.29%
용 적 륜	35.28%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옥외체육 시설
주요의장재	지붕 - 천연슬레이트석 외벽 - 제주석,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한라산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에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한라산을 형상화하고 제주도 꽃을 수놓아 제주도 특유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옹기종기 모인 오두막집을 구상하였다.

제주시민의 안식처로서 이바지하는 장소가 되어 주고 싶다.”

30여만평의 드넓은 자연공원의 일부인 본 대지에서 계획의 주안점은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진입하도록 하고 지형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진입 광장을 데크로 높여서 '올래, 올래

목, 안거리, 밖거리' 등의 제주도 전통 건축의 공간구성 개념에 따라 공연장 건물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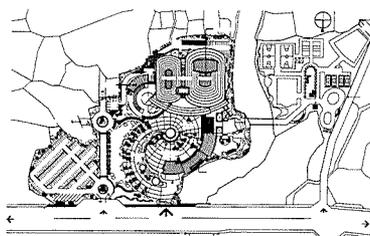
진입로 입구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 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배치와 조화되는 동심원 구성으로 계획함으로써 '제주설화 조각공원, 제주 화훼단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서서히 시야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극장과 소극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로비와 아트리움으로 내외부공간의 연계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특히 관광객을 위하여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지하층의 전시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로비에서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였다.

주진입 광장을 데크로 높임으로써 지하층을 야외 전시장과 같은 레벨로 계획하고 여러 곳에 선큰을 두어 지하층의 모든 부분에 자연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외부에서의 자연스러운 출입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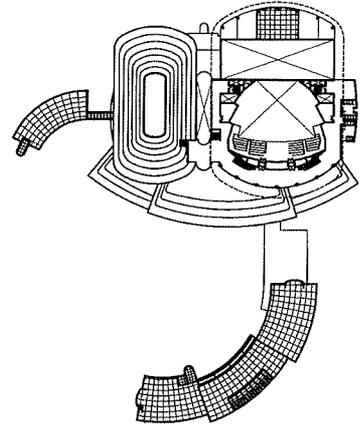
옥외 조각전시공원을 활성화하여 문화회관 지하의 전시실 기능을 옥외로 연장하고 복지시설동의 앞마당 역할로써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였다.

한라산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단식 지붕의 상단과 하단사이에 매입식 조명등을 설치하여 아간에도 지붕의 윤곽이 운치 있게 보이도록 적극적인 조명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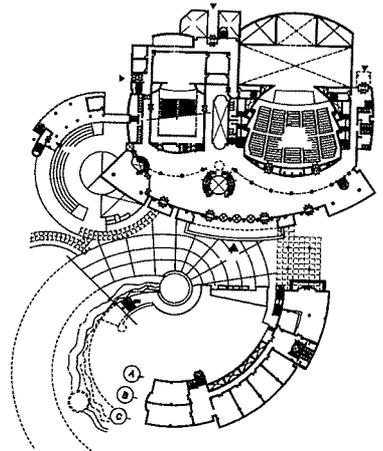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제주시민의 휴식처와 문화적 교류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의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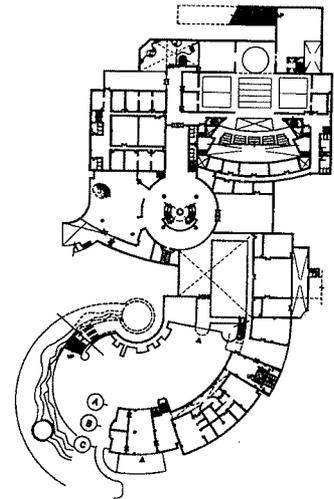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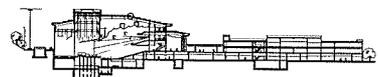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소공연장 단면도



대공연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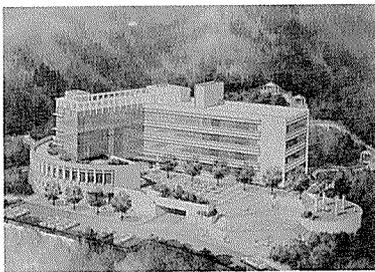
창원시립 서상도서관

Changwon Suhsang Municipal Library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중심지인 창원시에서는 21세기 지방의 세계화와 자치시대에 경쟁력있는 시로서 그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에 마산과 창원 일대의 그 지역 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의 레크레이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일반공개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4월 12일 매사건축(전재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종 18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창원의 돛건축(노영웅)안이, 가작은 가원건축(임부춘)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조흔(창원시 부시장, 위원장), 김정덕(창원시 도시계획국장), 윤장우(창원시 건축종합민원실장), 배사문(창원시 시의원), 조성기(부산대 교수), 박시환(부산대 교수), 박춘근(동아대 교수), 조용수(동아대 교수), 서유석(창원대 교수), 김무권(하나그룹), 김인철(아르키움), 김영섭(건축문화)

▶ 최우수작 / 매사건축(전재근)



조감도

위 치	경남 창원시 서상동 산 50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원지구)
대지면적	10,008.0㎡
건축면적	1,159.46㎡
연 면 적	5,091.31㎡
건 폐 율	11.59%
용 적 륜	34.37%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화강석 버너구이, 24mm 파스텔
복층유리

형태(Mass)계획

- 구성
 - 도서관의 각각의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매스(Mass)로 구성
 - 열람동 :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장방형의 직사각형 형태
 - 장애인, 모자열람동 : 대지와 주변의 자연녹지의 자유곡선을 형상화시킨 자연스러운 형태도입
 - 사무, 회의동 : 외부공간의 다양한 연출을 위해 열람동과 장애인, 모자열람동 두개의 Mass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브릿지 형태 채택
- 상징성
 - 서상공원내의 오브제(Object)로서 상징적인 형태 구성
- 다양성
 - 기존의 무난하고 특징없는 형태의 도서관형태를 탈피하고 주변의 대지현황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Mass 채택
- 친근감
 - 이용자들의 진입이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

평면계획

- 개념
 -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용의 편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 공간의 효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성을 확보
 - 합리적인 내부공간 구성과 주차를 위한 기본 모듈채택
 -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향을 고려한 평면구성
- 진입
 - 대지 레벨을 이용해 다양한 진입계획
- 열람동
 - B.D.S(Book Detection System)영역을 도입한 개가서고 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그룹스터디실 계획
- 첨단정보와 컴퓨터 도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파크(Cyber park)계획
- 주변의 자연녹지로의 시각확보와 일정한 조도의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위해 루버사용
- 각각의 실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중앙홀 계획
- 사무동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 옥상공원의 계획으로 외부공간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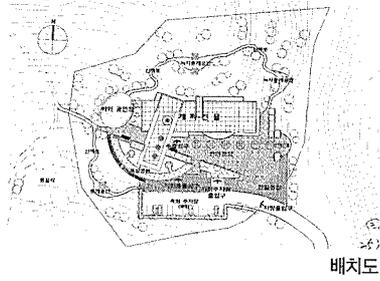
입면계획

- 이미지
 - 서상공원내의 자연 환경에 융화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 추구
 - 서상공원내의 오브제로서의 이미지형성과 정면성 확보
 - 현대적인 감각의 매스와 도서관의 기능 및 이미지에 부합되는 입면
- 입면
 - 각동의 매스의 균형과 조화에 의한 상징성 부각
 - 주위 자연 환경, 대지의 특성, 건물의 배치를 고려한 Void와 Solid, 면과 선의 조합에 의한 수직·수평적인 입면 요소 디자인
 -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철과 유리에 의한 투명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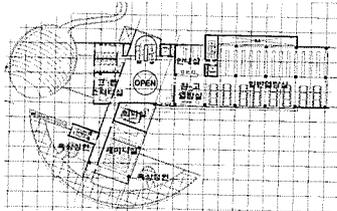
단면계획

- 수직적으로 열람기능과 사무 및 대민봉사 기능으로 분리하여 배치
- 선큰을 서비스 공간과 연결하여 채광 확보
-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열람자와 관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
- 선큰에 의한 지하공간의 채광 확보
- 층고 및 천정고의 계획에 있어 각 실의 기능과 용도에 알맞게 하여 휴먼스케일에 의한 친근감을 주도록 한다.
-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층고로 계획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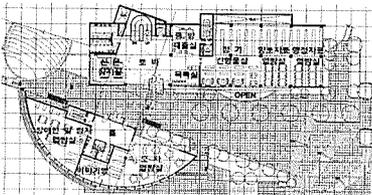
비용절감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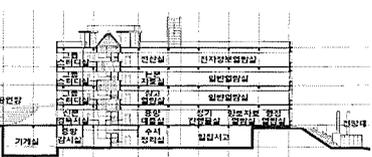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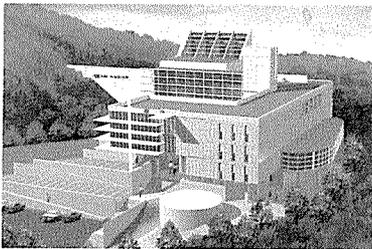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우수작 / 돔건축(오영웅)



정면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대지면적	10,008.0㎡
건축면적	1,810.0㎡
연 면 적	5,189.89㎡
건 폐 율	18.09%
용 적 륭	46.26%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면계획

- 1층

- 전시/상연영역과 도서열람영역
주진입축을 경계로 하여 전시/상연영역과 도서열람영역이 나누어짐으로써 이용의 직접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도서검색 시스템(Book Detection System)
주출입 현관에 도서검색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도서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주 진입층인 지상1층에 주부와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열람/놀이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편리를 기함과 동시에, 독서실화된 도서관의 이미지를 지양하였음.
- 전시/상연영역에 배치된 식당/소매점을 옥외공간인 데크와 연결시킴으로써,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유도함.

- 지하1층

- 서비스영역 -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작업실을 집중배치하여, 업무의 효율과 동선의 혼란을 피함.
- 도서의 흐름을 고려한 배치계획 - 포장 하역대를 통한 도서 반입 및 목록작성, 발간/제본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반입도서의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북리프트(Book lift)를 이용하여, 반입처리된 도서가 서고로 손쉽게 이동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지하층의 남동측이 외기에 면함과 동시에 선근을 두어 직원들의 직접적인 접근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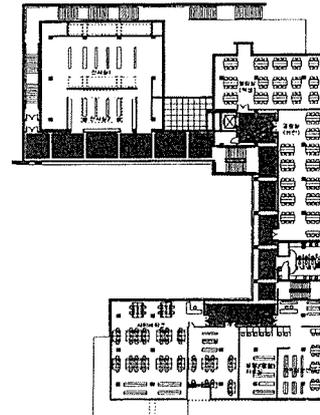
- 2층

- 전시/상연영역에 배치된 강당겸 제1세미나실을 통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상연을 통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도서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을 제고함.
- 각종자료실 및 정보검색과 관련된 기존 도서관 업무를 단순화, 밀접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쉽게 하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서고의 위치를 북 리프트(Book l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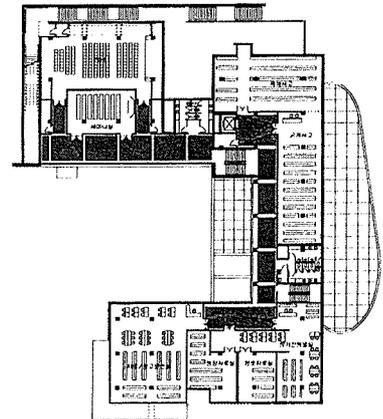
에 근접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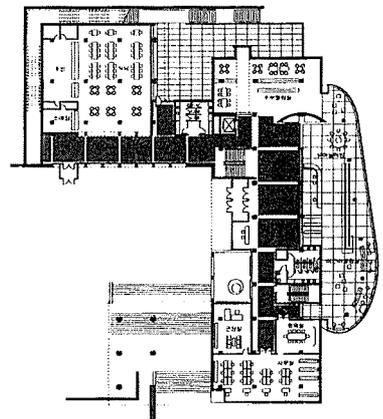
- 전시/상연영역에 전시실을 배치하여, 도서관의 상설전시 및 지역인들의 전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멀티미디어 기능의 열람실과 학생열람실을 상부에 배치하여 주 이용대상자였던 학생층의 이용을 상층부로 끌어올림으로써, 도서관 전체의 이용률을 높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